교회소식

- 정기제직회 공고
  - 일시: 2019. 9. 15(주) 세광교회 본당
  - 안건: 재정보고 및 각 부서 사역 보고

- 교우협력부: 2019 가족수련회
  - 일시: 9월 7일(토) ~ 8일(주일)
  - 장소: 라마나욧 수양관 (Ramah Naioth Prayer House)
    2 Mud Pond Trail, Vernon, NJ 07462
    (Ph)973 -697-4821
  - **수련회 도착 시간은 오후 4시**입니다. **오후 5시 예배**로 시작합니다.
    자세한 사항은 안내지를 참조하십시오.
  - 다음 주일예배는 수련회 중 주일 오전 9시에 드립니다.
    성찬식 있습니다.
  - **참가비는 구역별로 모아서 교우협력부에 전달해 주세요.**
    (어른 : 30불 / 중•고등부 : 20불 / 그 이하 : 무료)

섬기는 사람들

9월 안내: 신미라 권사
다음 주 대표기도: 한주루 권사 (시 1)
이번 주 친교: 하영미 집사, 이영미 집사
다음 주 친교: 세광가족 수련회

기도

"영혼이 잘 됨 같이":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능력과 은혜를 위해
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
심령에 들려 열매 맺는 말씀
성령의 도우심으로 정직하고 담대하게 선하신 뜻을 구하는 기도
"범사에 강건하기를": 교제와 양육이 풍성해지도록
성도 개개인의 구원의 확신과 신앙성장, 성령충만을 위하여
새 가족이 쉽고 편하게 적응하도록
구역장들 (목회자의 마음, 성령충만, 삶의 균형, 헌신)
구역예배를 통해 교제가 풍성해 지도록
성경공부, 성경통독, QT, 등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
교역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: 거룩과 성령충만. 지혜와 은사. 강건함을 위해
선교사를 위해: 순돈호(슬로바키아), 최정희(도미니카), 장영호(GP 본부),
이정석(WEC 본부), 김승훈(베트남), 정명섭(모잠비크)
CSO(미자립교회 지원사역), 이성주 (필리핀), 최문재 (혼두라스)

제19권 34호 2019년 9월 1일

뉴욕세광교회
Sekwang Korean Presbyterian Church

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(마 5:14)

예 배 안 내		주 일 학 교	
English Service	10am / Sanctuary	**유치부**	12pm / 유치부실
주일 예배	12pm / 본당	**유년부**	12pm / 유년부실
금요 기도회	8pm / 본당	**중·고등부**	12pm / 소예배실
토요 새벽기도	6am / 본당		

성경공부 및 모임

성경공부	**창세기**	수 8pm / 2층 친교실
	풍성한 생명	목 10am / 2층 친교실
	창세기	토 7:30am / 소회의실
중·고등부 성경공부		금 8pm / 소예배실
새가족 모임		주일예배 후 목회자실
구역 모임		구역별

섬기는 분들

담임목사: 이민영
시무장로: 김동수, 서영수
교육부 전도사: Edwin Kim / **유년부 간사:** 안정자
지휘자: 임대영 / **반주자:** 이영미

교회 연락처

(914) 874-3606 / nyskch@gmail.com
70 Bedford Road, Pleasantville, NY 10570
Homepage: www.nysekwang.org
Podcast: 뉴욕세광교회 주일설교
English Worship Sermons @ Sekwang

<2019년 표어>
"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(Behold, I am doing a new thing!)" (사 43:19)

English Service

<10am> Worship Leader: **Pastor Edwin Kim**

Opening Praise	"All Who Are Thirsty"	Together
✱Call to Worship		Together
✱Worship & Praise		Together
Confessional Prayer		Together
Apostle's Creed		Together
Offering Prayer		Leader
Word of God	**Romans 1:16-17**	Pastor Kim
Sermon	**"I Am Not Ashamed!"**	Pastor Kim
Intercessory Prayer		Together
Closing Praise	"Amazing Grace"	Together
✱Benediction		Rev. Lee

주일 예배

<오후12시> 인도자: **이민영** 목사

✱입례찬송 Opening Hymn	"찬양하라 내 영혼아" Blessed the Lord, O my soul	다함께
✱경배와 찬양 Worship & Praise		다함께
✱신앙고백 Apostle's Creed		다함께
✱찬송 Hymn	569장(통442장) "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" Saviour, Like a Shepherd Lead Us	다함께
대표기도 Prayer	시 81:1, 10-16 Psalm 81:1, 10-16	최병식 집사
찬양 Anthem	"이 몸의 소망 무언가"	세광 찬양대 Sekwang Choir
봉헌기도 Offering Prayer		인도자
성경봉독 Word of God	**이사야 44:9-20; 46:1-7** Isaiah 44:9-20; 46:1-7	인도자
인사 및 광고 Greetings & Announcements		인도자
설교 Sermon	**"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"**	이민영 목사
✱찬송 Hymn	94장(통102장) "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" I'd Rather Have Jesus	다함께
✱축도 Benediction		이민영 목사

✱일어나 주십시오 (Congregation Standing)

지난 주 주일 말씀

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사야 43:8-21

눈 멀고 귀 먹은 이스라엘 백성을 열방이 모인 재판정에 불러 증언해 보라고 하십니다. 모인 열방들도 정확한 증인을 낼 수 없습니다.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영광을 찬송 삼으실 것을 예고하시고, 행하시고, 선포하신다고 하십니다. 새 일을 행할테니 다 목격하라고 하십니다.

그 "새 일"이란 일차적으로는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멸망케 하시리라는 것입니다. 보낼 사람이 누구인지는 곧 밝혀지겠지만,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포로에서 구하시기 위해 대제국 바벨론을 도망치게 하십니다. 이전에 애굽을 속량물로 치르고 자기 백성을 구하신 것처럼(43:3), 홍해를 가르고 건너게 하신 것처럼(16) 이제 바벨론에서 나와 사막에 난 길을 지나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.

이렇게 "새 일"이란 예전의 출애굽보다 더욱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있는 자기 백성을 구하시는 일입니다.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은 그것보다 훨씬 근본적이고 영원합니다. 그것은 자기 백성을 새롭게 하시는 일입니다. 새롭게 되지 않은 백성은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을 보지도 누리지도 기뻐하지도 못합니다.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의 도구가 되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갈 뿐입니다. 애굽이 이스라엘의 구속을 위한 속량물이 된 것처럼,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풀어주기 위해 도망자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.

그러내 새롭게 된 백성은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로 인해 구원을 받고 기뻐할 뿐 아니라, 그 일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부릅니다. 출애굽의 놀라운 구속을 받았어도, 눈 멀고 귀 먹어 하나님께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던 백성을, 이제는 하나님께 청종하는 종, 그 영광을 보는 증인으로 세우시는 것이 진정한 "새 일"입니다.

이 일은 궁극적으로 예수께서 이루실 일입니다. 우리의 길 되신 예수께서 진리로 인도하시고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. 죄와 죽음의 광야를 지나 생명에 이르는 길 되시고, 목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물이 되십니다. 더 이상 눈 멀고 귀 먹지 않은 백성 되도록 성령께서 임하실 것입니다.

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와 이 사회에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. 어떤 나라와 정권의 무지와 폭력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의와 화평을 이루실 것입니다.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의 경향을 파악해서 이 당, 저 정책을 택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. 모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갈 뿐입니다. 창조주, 구속자, 만 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배가 날로 새롭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.

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. 교회의 타락과 쇠퇴에 너무 분노하지 맙시다. 하나님의 백성, 교회 되기를 애쓸 때, 하나님이 교회를 개혁하시는 놀라운 일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.

우리 교회에도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. 우리의 계획과 소원대로 미래의 그림을 그리지 말고,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, 옛적부터 하셨던 일을, 지금까지 인도하신 일을, 지금 베푸시는 은혜를 잘 살피고 기억하고 기도하면,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의 증인 될 것입니다. 그 일에 쓰임 받는 종이 될 겁니다.

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. 창조자 하나님,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함으로,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날마다 새롭게 됩시다. 하나님이 하시는 "새 일"의 새 피조물, 그 "새 일"의 증인, 그 "새 일"을 기뻐하며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예배자들이 됩시다.